

Q.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.

- 비전공자로 학원에서 개발 관련 학습을 했습니다. CPU, RAM 이런 것도 모를 정도로 심각한 비전공자였습니다. 전에 했던 일은 코딩과 무관했고, 심지어 타자도 느린 편이었습니다.
-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R&D 연구소 개발자로 근무 중입니다.

Q. 훈련과정 참여하면서 어떻게 공부하고,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

-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. 머리로 알고 있는 뻔한 이야기도 많은데 저는 완전 핵심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친동생이 개발자 되기 위해 준비 한다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하라고 이야기 할 내용들, 이른바 '훈련기간 중에 무조건 맞춰놔야 하는 것'입니다.

1. 수료

- 입사지원서에 IT교육원 수료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큼니다. 그러니 꼭 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.
- 공부하다보면 내 길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. 따라치는 것만으로도 벅차고, 어쩔 땐 따라 치지도 못합니다. 저도 그랬습니다. 그렇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, 처음 교육원에 어떤 마음으로 오게 됐는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.

2. 학력

- 무조건 봅니다. 경력은 안 볼 수 있지만 신입은 봅니다. '나는 공부도 열심히 했고, 말을 잘하기 때문에 기술 면접 때 승부를 보겠다?' 면접 기회도 안옵니다. 방송통신대학교, 학점은행제 등 적극 활용해서 학위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.
- 이 부분은 여러 의견이 있을테니 좀 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, 요즘 IT업계에서 학력보다 실력과 경험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하지만, 학생들이 프로젝트를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. 현재 진행 중인 공고 아무거나 들어가봐도 200, 500명... 지원자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면접을 볼 수 있을까요? 제가 대표라도 면접자를 본다면 대졸 학력부터 볼 것 같습니다.

- 저의 경우, 80군데 지원했는데 하나도 연락이 안왔습니다. 서류탈락엔 여러 요소가 있겠지만 저에겐 학력이 걸림돌이라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방통대 입학하고 이력서 학력부분을 업데이트 했는데, 그때부터 많이 연락왔습니다. 여력이 된다면 꼭 학력부분을 미리 보완해두시길 권합니다.

3. 코딩이랑 친해지기

- ‘수업필살집중, 복습 철저히, 모르는 건 쉬는시간에 강사님께 물어보기’ → 이게 진리!!!! 사소한 것도 물어봐야 합니다. ‘가르쳐주시는 분이니까 내가 모르는 걸 잘 알겠지..?’ 아니오, 말 안하면 그 누구도 모릅니다. 내가 모른다는 걸 강사님께 전달해야, 강사님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- 코딩과 익숙해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. 공부 안하면 더 하기 싫어지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도록 움직일 수 있게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. 어느 정도 경력 쌓이면 서칭 안해도 찾아라락 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. (선배들도 보면 다 찾아보면서 치던...;;) 회사에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절대! 다 모릅니다. 근데 내가 기본이라도 할 줄 알아야 모르는 걸 찾을 수 있고,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 공부해야 합니다!
- 훈련기간 동안 학원에 남아서 공부하는 거 추천합니다. 저는 늘 오전 8시 30분에 학원오고, 마감도 하고 갔습니다. 늘 늦게 가니까 으레 내가 마감하겠거니 싶어서, 아예 오전에 행정팀에 가서 열쇠를 받아왔습니다.
- 처음부터 무리하게 남기보다 남는 시간을 점차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. 남아서 오늘 수업시간에 공부한 거 똑같이 따라 해보고, 이해 안되는 거 있으면 챗 GPT를 활용하거나 다음 날 강사님께 여쭙보세요. 계속 하다보면 흠어져 있던 게 어느 순간 합쳐져 이해하게 됩니다.

Q. 구직활동은 어떻게 하셨는지 이야기해주세요.

1. 서류

- 저는 수료하고 개인 볼일을 정리할 게 있어 그거 한 두달? 정도 하고 바로 했습니다. 하루에 3개씩 넣고, 보이는 대로 다 넣는다는 생각으로 지원했습니다. (공고검색 시 저만의 팁을 하나 드리자면, 정렬기준을 ‘마감일’로 두고 보는 겁니다. 당장 마감일 오늘 내일 하는 건 ‘어짜피 지원 안하면 아예 끝나나는거니 일단 넣어보자’하고 다 지원했습니다)

- 기본적인 틀의 입사지원서를 하나 만들어두고, 지원하는 회사마다 약간씩 변형을 주었습니다. 면접에서 서류 내용 기반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대답하려면 내용을 잘 써야 합니다.(그래야 나도 내용이 생각남) 코딩 관련된 내용도 적었지만 내가 어필하고 싶은 점(ex.회사에 헌신적인 자세)도 넣었습니다.
- 서류 작성에서 중요한 점은 '포인트'인 것 같습니다. 사례가 중요하더라구요. 성격의 장점을 쓴다면 '내 장점은 ~~다'라고 그냥 쓰면 안되고 사례를 들어야 납득을 합니다. 챗GPT도 활용했는데요, 내가 쓴 글을 바탕으로 원하는 부분을 보완한다든지, 다듬는다거나 할 때 썼습니다.(제가 봤을 때 저는 애한테 상대가 안되거든요....) 그리고 성격의 장단점을 쓴다고 하면, 단점의 경우 꼭 보완노력을 써야합니다. 장점과 단점&보완노력은 하나의 세트라 생각해야 합니다.
- '나는 아직 회사에 들어가서 일할 수준이 아닌 것 같다. 수료 후 따로 공부를 더 해서 취업을 준비해야겠다'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준비만 하다 끝납니다. 면접 되도 가기 싫고, 준비 안되서 하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. '아 몰라' 마인드로 부딪혀봐야 합니다. 면접도 익숙해져야 내 기량이 나오기 때문에 준비가 안됐어도 그냥 갔습니다. 일단 해봐야 합니다.

2. 면접

- 먼저 고정적인 질문부터 준비했습니다. 내 이력서를 보면 질문할 것 같은 걸 골라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겠다 정리했습니다. 예를 들어, 왜 개발자를 지원하느냐, 전에 무슨 일 했느냐, 이거 어떻게 했냐 등등
- 회사도 신입을 뽑는 거라 엄청 큰 기대는 안합니다. 면접이 잡히면 그 회사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. 제가 기술적으로 부족해서 보여줄 건 없으니, 회사 홈페이지, 관련기사 등 찾을 수 있는 온갖 정보는 다 찾아보고 숙지해서 면접에서 회사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있다, 일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여주려 했습니다.
- 면접에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질문을 항상 물어봤습니다.(기능 등 관련내용) 엄청 어려운 걸 물어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준비를 잘해도 막상 가면 기억이 안나더라구요. 그래서 많이 지원해서 많이 면접을 가야하는 것 같습니다.

Q. 성향이 긍정적이고 실행력이 좋은 편인 것 같아요. 훈련과정 중, 수료 이후 멘탈관리나 마인드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까요?

- 실행력이 좋은 건 저의 성향인 듯 합니다. 저만의 기준을 정해서 딱 그대로 움직였습니다. '제일 일찍와서 제일 늦게 간다'라고 정하면 그냥 그대로 실행했습니다. 지금 내가 해야하는 것에 집중하는데, 한번 하면 그것만 하는 성향이라 더 그랬던 듯 합니다.
- '지금 잘하자'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미래 생각, 앞으로에 대해 생각하면 굉장히 막막하고 앞이 안보입니다. 그래서 '지금 잘하자, 각자 잘하자, 남 신경 쓰지말고 내 것에 집중하자'라는 생각으로 임했습니다. 나중에 프로젝트 하게 되면 다들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싸우기도 하고 대립이 생기는데요, 내 것에 집중하고, 내 것을 잘하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.

Q. 프로젝트 이야기를 언급하셨는데, 미리 경험한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요?

- 프로젝트를 하다보면 아주 사소하게라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. 이를 최소화하려면 파트 분배를 잘해야 합니다. 저는 자기주제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, 즉 '자기 능력치'를 알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저는 프로젝트에서 로그인 기능만 2번이나 했습니다. 제 실력이 좋은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같은 걸 2번 했어도 만족했습니다. 뭔가 잘하고 싶고, 그럴싸한 결과물을 만들고 싶어서 기획단계 또는 다 완성한 후에 보완하는 경우가 있는데, 그렇게 건드렸다가 전체 기능이 안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. 내가 생각하는 실력의 기준보다 약간 낮게 잡고, 그게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.

Q. 타 분야 사회생활을 하고 개발로 전향한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경우 신입으로 입직하기에 다소 높은 연령대에 속하는 경우 있어, 이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본인도 비슷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요.

- 나이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. 될 사람은 되더라구요. 너무 늦게 시작한 거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.. 뭐 어쩔 수 없잖아요. 나이를 바꿀 수도 없구요^^;;; 지금 열심히 하는 수 밖엔 없는 것 같습니다.

- 나이 대신 채울 수 있는 무언가를 어필해보세요. 예를 들면, 저 같은 경우엔 열정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. 서류와 면접에서 항상 ‘내가 회사에 대해 이렇게 많이 알고 있다, 이런 내용까지 찾아봤다’라는 걸 드러내려 했습니다. 다들 잘하실 수 있습니다!

Q. 회사에 입사하면 그때부터 또 걱정이 많습니다. 어떤 일을 하나, 잘 따라갈 수 있을까, 내 실력이 부족한 데 할 수 있을까 등. 관련해서 입사 후 본인은 어땠는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?

- 제가 있는 연구소엔 3명의 개발자가 있어요. 저는 펌웨어 개발 쪽인데, 웹 개발도 아예 안하는 건 아니지만 비중은 펌웨어가 큼니다.(웹 개발 회사 가도 웹 개발만 하는 건 아님)
 펌웨어 개발 땀 C, C++, 시뮬레이션은 파이썬을 사용합니다. 저는 자바만 배워서 다른 언어 사용에 대해 두려움이 있었는데, 해보니까 다 비슷하더라구요. 회사에서 교육해주셨구요. 저는 학원에서 배운 걸 업무에서 쓰진 않지만, 배운 내용이 기초가 됩니다. 이게 기반이 되어야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.
- 처음 들어오면 신입은 다 바보라 생각하면 됩니다ㅎㅎ 회사도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. 사수가 교육을 해줬는데, 공부 하라고 하면 하고, 이거 하라고 하면 이거하고 그랬습니다. 업무의 경우 회사는 내 능력에 바탕해서 내가 할 만큼 주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. 하면 하게 되어 있더라구요.
- 야근은 거의 없습니다. 입사 초반엔 누가 안가냐고 물어볼 정도로 남아있었습니다. 집에 가도 할 거 없으니까 공부라든지 필요한 거 했습니다.(약간 열심히 하는 저를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남은 것도 있습니다ㅎㅎㅎㅎ) 업무 시기나 상황에 따라 야근 여부는 때때로 다릅니다.(요즘은 조금 있음)

Q. 구직활동하면서 또는 지금 일해보니, 취업 전에 미리 해뒀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있나요?

- 위에서도 이야기 했던 ‘수료 > 학력 > 자격증’ 순으로 권합니다. 뭐라도 해두면 좋습니다. 저의 경우 자격증 하나도 없었습니다. 구직활동하면서 따로 준비한 것도 없구요. 엑셀도 회사 가서 배웠습니다.
- 단, 이것만큼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‘다른 일을 할까? 이걸 안맞는 게 아닐까? 생각하는 것입니다. 저는 무조건 수료를 제일 우선 시 했습니다. 이게 제일

중요합니다. 내가 학원에 온 이유, 여기 온 선택, 그 초심을 잊지 마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.

저는 여기가 마지막이라 생각했습니다. 이거 포기하고 다른 데 가면 나아질 것 같다? 아뇨,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. 그냥 하세요. 계속 하세요!

Q. 마지막으로 전달하고 싶은 메세지가 있다면요?

- 지금이 제일 중요합니다. 회사가 어쩌구, 어디가 좋고, 이건 어떻고..... 전부 먼 얘기입니다. 프로젝트면 프로젝트, 수업이면 수업, 복습이면 복습. 지금 내가 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.

예전에 개발 공부할 땐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. 근데 예전에 힘들었는데 지금도 힘들면 흥터로 남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집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진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